

陽村文忠公의 충주 양촌 구업지舊業地

이천시 읍면 양아리설說 나와
이천향교 향토사가 ‘이천신문’에 장기연재



▲ 이천향교 장의라고 현직을 밝히고 있는 이천향토사가 한승남씨가 이천시 도서관장실에서 회견에 응해주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利川市에서는 지역신문 ‘이천신문利川新聞’이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어 지령 480여호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 신문에 현재 이천향교利川鄉校의 장의掌議로 있는 향토사가郷土史家 한승남韓勝男씨가 상조箱組지면에 ‘지명유래·이천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천지역의 지명이 생긴 내력을 추적해 분석하는 기사를 오래 연재하고 있다. 그 연재물의 2007년 5월 24일자 423호부터 게재된 ‘양아리陽阿里 편이 19회에 걸쳐 나가고 ‘한성보漢城淑와 붓들’ 편이 2회, ‘어래御來바위 편이 3회, ‘지시랑池侍郎이 편이 4회, ‘양촌陽村 편이 15회에 걸쳐 나가면서 2008년 5월 8일자 471호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게 우리 안동권씨의 시조후 14세 충정공忠靖公 휘 고阜와 그 손자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휘 근近 일가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실려 관심있는 지역 독자의 이목에 들어갔다. 현재의 신분을 이천향교의 장의로만 밝히고 있는 향토사가 한승남씨는 양촌 문충공의 종자仲子 지재止齋 문경공文景公(17世 躋)의 6남3녀 중 셋째사위 서원군瑞原君 한명진韓明晉의 후손으로서 양촌 문충공을 그 선외조로 경모하며 이 추적기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고 있다. 한승남씨는 일찍 이천군청의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관내

의 면장과 본청의 공보실장 등을 지내고 정년퇴임하여 향교 등에 관여하여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토사가로서 이천시립도서관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 3월경에 이천 출신으로 서울 원서동에서 불교미술관을 열고 있는 권대성權大城씨의 제보로 알게 되어 5월과 6월 두 차례 이천에 가 한승남씨와 회견을 하고 그 안내를 받아 현지답사를 하였다. 두번째 이천에 가 답사를 하는 길에는 문중인으로서 같은 양촌선생의 후손인 서울의 권병홍權炳洪 기로회장과 권태영權泰永·권오상權五相씨, 그리고 이천시 읍면 현지의 권혁성權赫成씨가 동행하였다.

■이천시 읍면栗面의 양아리陽阿里

이천시 읍면栗面 산양2리山陽二里의 자연부락을 양아리陽阿里라 부르고 있다고 한승남씨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1997년에 이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이천시문화원과 서울의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펴낸 ‘읍면문화유적·민속자료보고서’ 302면에 ‘양아리’는 약 500여년 전 권양아權陽阿라는 학문이 높은 선비가 은거했던 마을이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라고 하나 출전이 분명치 않고 인물에 대한 내력도 알 수 없다고 조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씨는 이렇게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권양아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권씨성에 양陽자가 들어가는 이름의 학자가 (여기에) 살았음을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면 어떤 학자가 살았을까. 나는 몇달 전부터 고려말 조선초의 대유학자이며 문장가로 유명한 양촌陽村 권근權近선생의 문집을 읽고 있다. 양촌집

을 1973년에 구입하여 읽어서 보았지만 요즘 다시 읽고 또 읽음으로 새로운 사실, 즉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뒤엎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양촌 권근선생을 권양촌權陽村이라 부르는데 이는 목은 이색을 이목은李牧隱, 정암 조광조를 조정암趙靜菴으로 부르는 바와 같다. 권양촌은 고려말 명필이며 시문으로 유명한 나의 20대조 유향柳巷 한수韓脩의 문하생이며 또한 나의 17대조 증병조판서 한명진韓明晉의 배위 고녕현부인古寧縣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는 태종 14년(1414) 친시에 장원하고 대제학·우찬성을 지내며 고려사를 엮은 권계權隄의 따님으로 권양촌의 손녀이다.

양촌의 시문에서 그 ‘충주구업忠州舊業’에 대해서 가장 명문明文으로 묘사되어 나오는 것은 양촌집陽村集 권7에 실린 시 ‘송김양구공이석칠장사시병序送金陽圭公移錫七長寺詩并序’이다. 풀어 옮기면 ‘칠장사七長寺로 옮겨 가는 김양사金陽寺의 (주지住持) 구공圭公을 보내는 시와 거기에 아울러 씀’이다. 여기에서 아울러 씀이라 한 병서并序의 서序는 본시에 덧붙인 주기註記인데 옛사람의 시작에서는 이 서가 시의 머리말처럼 먼저 나온다. 그 서는 이러하다.

상上(공양왕)께서 즉위하여 다시 치화治化를 펴는 초기(1390)에 공공공工과 환두驪兜(중국 순舜임금 때의 죄인)의 무리를 내침에 따라 나도 덕원德原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 봄에 흥해興海로 옮기니 다 해곡海曲으로서 황벽荒僻한 곳이 었다. 여름에 다시 김해金海로 옮기니 비록 더 멀기는 하지만 고을이 크고 백성은 조밀하여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내가)

옮긴 것이 다행이라 하였고 나 역시 임금의 함육涵育의 인덕을 입는 것이 즐거워 스스로 경사스러워하였다. (김해에) 이르러 보니 판관判官 익양益陽(영천永川) 이후李侯(侯는 수령守令의 미칭)가 나와 지구知舊였다. 나를 김양金陽(김해金海의 강북江北)의 고사古寺에서 관거館居케 했는데 그 절의 주인 유가瑜伽(유가瑜伽는 유가종瑜伽宗, 즉 불교의 법상宗法相宗인 듯) 구공圭公(圭는 법명法名의 끝자일 것)이 질실質實하여 거짓이 없는 사람인지라 내가 쫓겨나 귀양사는 것을 연민하여 조석으로 곁에 있어주었다. 내가 이후를 얻어 의지를 삼고 구공을 만나 좋은 벗을 하니 더욱 스스로 복되게 여기고 즐거워하여 스스로 먼 곳에 귀양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몇 달이 못되어 이후는 갈려가고 구공 또한 죽주竹州의 칠장사七長寺로 옮겨 서로 이어서 (나를) 버리고 떠나니 아침에는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녁에는 좋아할 사람을 잃은 바 되었다. 대저 사람이 만났다가 떠나게 되면 슬픈 것이 상정常情인데 하물며 곤궁히 떠돌아다니는 때를 당하여 의지할 사람을 잃고 근심하며 억울한 가운데 그 좋게 사귀던 벗을 잃었음에야 그 연연하고 서글프며 한스러운 정이 어떠하겠는가. 아아,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은 모두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행과 불행이 있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고 추방된 나머지 에 죽지 않고 공을 여기에서 만난 것은 다행이었는데, 홀연히 여기서 서로 헤어지게 되니 또한 이 얼마나 불행한 노릇인가. 그러나 죽주라는 곳은 충주忠州와 서로 인접해 있고 그 경계에 망이산望夷山이 있어 그 서쪽은 칠장사이고 동쪽은 충주의 양촌陽村이라 우리 집의 구업舊業(옛 별업別業)이 거기에 있는데 그 상거가 겨우 10여리로 가깝다. 만약 하늘의 혜택으로 내가 편의하게 풀려나 백성이 되어 돌아가 양촌에서 농사짓게 된다면 지팡이를 가지고 나막신으로 망이산의 재를 넘어 칠장사로 공을 찾아가 샘물을 길어다 차를 끓여 마시며 진루塵累를 씻고 오늘의 근심을 잊으리니 그 다행함이 더욱 많고 스스로 복되게 여겨 즐거움이 더욱 클 것이다. 아지 못게라, 하늘의 뜻이 과연 어느때나 이를 얻게 할는지. 작별에 임하여 슬퍼 말이 없을 수 없기에 이렇게 써서 주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짓는다.

김양고사최청유金陽古寺最清幽：김양의 옛절이 가장 맑고 그윽하여
축객남래도차류逐客南來到此留：추방된 손 남으로 와 여기에 머무는데
거국정회난자사去國情懷難

自寫：나라를 떠난 정회를 스스로 그리기 어렵더니
공승담소가관우共僧談笑可寬憂：승려와 함께 담소하며 근심을 누그러네
계전녹죽풍성세階前綠竹風聲細：섬돌 앞 푸른 대나무에 바람소리 가늘고
창외청산우기부窓外靑山雨氣浮：창밖 푸른 산에 비기운이 부푸는데
금일암연생별한今日黯然生別恨：오늘 암암하게 작별하는 한이 생기니
하시휴장갱상구何時携杖更相求：어느때 지팡이 끌고 다시 서로 찾을거나

위 시에서 나오는 칠장사는 현재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현산七賢山에 있고 고려말에 7년 6개월 동안 고려사高麗史庫가 있던 명찰이었다. 우왕 9년, 1383년 6월에 왜구의 침입으로 충주 개천사開天寺에 있던 고려왕조실록高麗王朝實錄을 이곳으로 옮겼다가 공양왕 2년, 1390년 12월에 왜구가 장해원長海院(장호원長湖院)으로 소굴을 옮기자 이를 다시 개천사로 환원해 옮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촌이 이 시를 지은 것은 칠장사에 아직 고려실록이 보존되고 있던 공양왕 2년, 1390년 윤4월이었다.

칠장사와 양촌陽村 사이에 있는 망이산望夷山은 현재도 경기도 안성시와 이천시 및 충북 음성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망이산望夷山 또는 매산이라 불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이천시 읍면 산양2리의 자연동명 양아리가 곧 양촌인데 권양촌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양아리가 음죽현陰竹縣으로서 충주목忠州牧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음죽현이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 충주목에서 벗어나 경기도에 편입되니, 권양촌이 이 시를 지은 지 23년에 음죽이 경기도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충주목에서 음죽현의 전부가 떨어져 경기도 땅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일부가 경기도의 이천부利川府나 죽산현竹山縣으로 들어왔다는 설일 것 같다.

양촌선생이 자호를 이곳의 구업 양촌으로 할만큼 ‘망이산 동쪽 충주의 양촌 우리집 구업(忠州之陽村也吾家舊業)’에 대한 애착이 컸을 것임을 추측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시에서는 칠장사와 이 양촌이 겨우 십리쯤 될만큼 가깝다 하였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멀어 30리나 되겠지만 옛적 천리 밖 먼곳에서 상상으로 짓는 시문에서야 이러한 실측 거리와의 차이는 크게 문제거리가 안된다.

망이산은 이를 동쪽에서 보면 이천시 읍면 산양1리의 뒷산이다. 그러니 양촌이 시문에 쓴대로 망이산의 동쪽에 있는 구업 양촌은 읍면 산양리의 양아리라는 것이다. 망이산은 분



▲ 권양촌의 구업 양촌이라는 이천시 읍면 산양리 양아리마을. 마을 뒤 서쪽에 있는 망이산이 선명하게 보인다.